“사회 갈등해소 불교비법 ‘사실확인’”

불교평론 8월 28일 온라인 세미나 화제

박병기 ‘꼬삼비 사례’ 통해
갈등양상 정확한 분석 요구
자비심 아래 구조해결 모색
손원영 교수 개운사 모델로
종교갈등 예방 평화안 제시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부처님께서 꼬삼비 수행자들 사이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처음 보인 반응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사실이냐?’ 였습니다.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우리사회에 만연한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좌우갈등에 남녀갈등, 최근에는 의료파업문제까지 늘어나는 사회갈등에 대한 불교윤리적 대안이 제시돼 눈길을 끈다. 불교평론이 8월 28일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한 학술심포지엄에서다.

불교평론은 8월 28일 서울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한국사회의 갈등, 그 극복을 위한 청문(聽聞)’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불교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학술심포지엄을 진행했다.

이날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사회의 갈등해소를 위한 불교윤리적 대안’ 발표에서 “우리 사회는 압축적 근대화 또는 산업화로 인한 휴유증들 속에서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그 소모적 방식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갈등이 아닌 것이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으로 부각되기도 하고, 사소한 갈등이 중대한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불교윤리적 관점에서 대안이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홍사성 불교평론 편집인이 온라인 학술심포지엄 전 인삿말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부처님께서 꼬삼비의 수행자들이 서로 반목하자 이를 해결한 과정에서 우리 사회 갈등해소의 방법을 찾았다.

박 교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갈등 자체에 관한 사실확인이다. 부처님은 사실이 확인되자 비로소 ‘승가에 분열이 생겼다’고 선언하고 해결과정에 들어갔다”며 “우리 사회 갈등도 아직 많은 부분이 사실확인조차 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갈등으로 증폭되고 있다. 이성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진정한 갈등인지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두 번째 단계는 갈등에 내재된 감정을 고려하며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라며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끝없는 악순환을 가져올 뿐이란 현실에서 친구관계를 유지해온 원수를 죽이지 않기로 결정한 디가부 왕자의 사례를 통해 부처님은 인내와 자비의 중요성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교수는 “세 번째 단계는 사회갈등에 내재된 구조적 요인을 고려한 제도적 대안 모색”이라며 “우리 사회 갈등 상당부분은 사회적 불평등과 교육 불평등 등 구조적 원인을 배경으로 일어나고 있다. 사회 내 빈부격차 확대가 정년연장과 청년취업 갈등 등 세대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만큼 갈등의 감정적 맥락을 살피고 구조적 개혁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김천 개운사 훼불사건에 대해 사과한 문제로 파면당한 손원영 前 서울기독대 교수는 ‘종교갈등 양상과 종교평화모델의 탐색’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손 前 교수는 “지금 한국사회는 종교갈등의 전환기에 있다. 종교평화를 위해서는 한국 종교인구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지닌 개신교와 불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1996년 1월 개신교인으로 인해 발생한 개운사 훼불사건 이후 개신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진행한 시민참여형 복원성금모금과 이후 종교전문가 학술토론회의 레페스 심포지엄은 ‘개운사 종교평화모델’로 훌륭히 종교평화의 모델로 제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손호철 서강대 명예교수의 ‘한국사회의 정치적 갈등의 기원과 양상’ △노중기 한신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갈등 양상과 특성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 △이도흠 한양대 교수의 ‘불평등에 관한 세대 - 계급갈등의 교차와 전위’ △이진경 서울과기대 교수의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의 문제’ △옥복연 종교와젠더연구소장의 ‘한국사회의 젠더갈등과 해소방안 모색’ 등도 발표됐으며 500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유튜브를 통해 시청했다.

첨단기술들로 부처님 안을 살펴보니…

국립중앙博 보존과학 특별전
불상 CT촬영 등 성과 전시
재개관부터 11월 15일까지
특별전 자료 온라인서 공개

최근 문화재 보존에도 첨단 기술들이 동원된다. 의료진단에서 많이 활용되는 ‘컴퓨터 단층촬영(이하 CT, Computed Tomography)’이 대표적이다. 실제 국립중앙박물관은 불보살상을 2012~2017년 CT촬영해 관련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재)불교문화재연구소는 지난 2017년 남원 실상사 건칠불상 조사 중 CT촬영을 통해 고려 은니사경을 발견해 화제가 됐다. 이 같은 문화재 보존과학의 성과를 만날 수 있는 특별전이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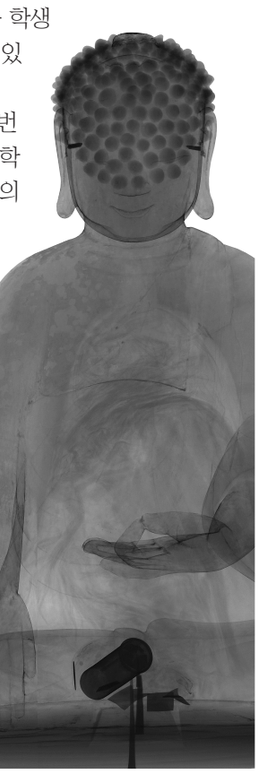


국립중앙박물관은 “박물관 보존과학부가 기획한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특별전이 준비를 마치고 재개관을 기다리고 있다”고 8월 31일 밝혔다. 첨단과학으로 밝혀낸 문화재의 비밀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이번 특별전은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 등 57건 67점이 전시된다.

전시 구성은 3부로 구성된다. 이중 제3부 전시인 ‘문화재를 진찰하다’는 불보살상에 대한 CT촬영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실제 전시에 소개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시대 목조석가불좌상’은 CT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양한 종이나 직물로 보이는 것과 후령통(복장물을 담든 통)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시는 11월 15일까지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박물관 개관이 금지돼 현재는 공개되지 못하고 있다. 대신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특별전 전시 유물을 영상자료로 제작해 박물관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우선 공개키로 했다.

영상 자료는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을 비롯해 교과서에서 소개된 문화재가 대거 포함되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교사와 학생들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우리 문화재를 과학적으로 분석·해석해 기존의 전시와는 전혀 다르게 문화재를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안정돼 박물관이 재개관하면 특별전시실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 그때까지 특별전 관련 자료들을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국립중앙박물관이 11월 15일까지 개최하는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특별전에서 소개되는 ‘조선시대 목조석가불좌상(국박 소장, 사진 왼쪽)’과 이를 X-선으로 촬영한 모습(사진 오른쪽). 내부 후령통이 확인된다.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이·취임 10월 6일

원행 스님 “신도회 전통 잘 잇길” 당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제26·27대 회장 이취임식이 10월 6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봉행된다. 주윤식 제27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장은 9월 3일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예방했다.〈사진〉



이날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주 신임 회장에게 중앙신도회 전통을 잘 살려 나갈 것을 주문했다.

원행 스님은 “이기흥 신도회장이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해 중앙신도회가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그 뜻을 잘 이어받아서 신임 회장이 이어주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고 종단과 사부대중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다. 신임회장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서로 화합하고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종단과 신도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스님은 “신도와 스님들 간 가교 역할을 하여 전국적인 조직화를 통솔해 불교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초석이 되도록 해달라. 특히 백만원력 결집이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윤식 27대 신도회장은 “종단과 최대 신도단체인 중앙신도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방자리서는 이·취임법회와 27대 신임임원 구성 등이 보고 됐다. 이취임법회는 10월 6일 오후 4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리며 조계종 총무원장, 포교원장, 교육원장과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스님, 신도회 임원 등이 참석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기흥 26대 신도회장의 퇴임 간담회도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 AW 컨벤션센터서 열린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인 터 뷰 평등버스 순례 회향 양한웅 사노위 집행위원장

“佛法이 곧 차별금지법” 깨달아

평등버스에 탑승한 고정멤버 13명 중 한 명인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양한웅 집행위원장을 만나 순례 회향의 소감을 들었다. 그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긍정여론을 이끌어온 평등버스의 핵심멤버로 손꼽힌다.

〈편집자 주〉



차별금지법 제정의 뜻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8월 17일 서울을 출발한 ‘평등버스’가 전국 순례를 마치고 8월 27일 회향했다. 무려 12박 13일의 기나긴 여정이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국 26개 도시를 순회하며 사람들을 만났다. 매일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모든 도시의 시청 앞과 번화가, 상징적 장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플랜카드를 펼쳤다.

성적소수자와 여성, 장애인,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물론, 세월호 유가족과 택시해고자 연대, 금속노조 파업노동자, 에이즈 환자 등 차별의 극한에서 증오와 혐오, 차별의 극한에서 편견과 싸워 온 이들과 마음을 나눴다.

공식적으로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기획된 전국순회 일정이지만, 평등버스를 만난 이들에겐 용기와 이해를, 버스에 탄 이들에게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새삼 뼈저리게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양한웅 집행위원장은 “세상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며 “내 인생에 다시 없을 기회였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고 단언했다.

“평등버스 순례를 하는 동안 니까야 경전을 다시 읽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차별의 극단에 있는 분들을 만나고, 버스에 타 이동할 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시 곱씹었죠. 제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과 일맥상통한다는 것이죠.”

양 위원장이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우리사회에 증오와 혐오가 사라지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다.

버스 이동중에도 경전 공부
법 제정, 사회 변화 첫걸음

그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인종, 성별, 나이, 성적지향을 포함한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차별금지법 제정의 일차적인 목적은 개인과 조직, 단체가 표출하는 편견과 증오, 혐오의 언행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근본적인 기대효과는 바로 차별적인 마음이 근본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평등버스 멤버 중 상당수가 성적소수자 활동가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을 향해 입에 담지도 못할 폭언과 욕설을 쏟아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 사람의 인격을 살해하고 존재 가치를 말살시키는, 그야말로 살인에 가까운 수위였습니다. 우리사회 차별의 극단에 있는 분들이 한평생 겪어 온 뿌리 깊은 증오와 혐오를 눈앞에서 확인한 셈입니다.”

평등버스는 12박 13일간 차별의 현장에서 고초를 겪으며 26개 지역을 지나온 셈이다. 그런만큼 성과도 놀랍다. 평등버스를 계기로 10곳 이상 지역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지역 지부’가 만들어지는 쾌거를 이룩한 것. 말 그대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전국 네트워크가 형성된 셈이다.

양 위원장은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마음이 담긴 단어 선택과 행위를 억제하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우리사회의 혐오와 증오, 차별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사라지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평등버스를 계기로 평등한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의 마음이 하나로 모인 만큼, 이번에야 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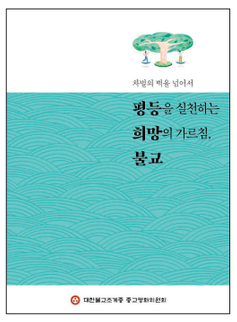
‘차별없는 세상’ 위한 인식교육 책자 배포

조계종 종평위, 9월 1일 발간
2000부 제작해 전국사찰 등에

조계종이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인식교육용 책자를 제작해 전국 사찰과 불교대학 등에 배포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불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한 취지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도심, 이하 종평위)는 9월 1일 차별금지 교육용 소책자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를 발간했다. 책자는 20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됐으며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제하의 여는 글을 시작으로, 불교의 평등사상과 종교차별 사례,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차별금지법에 관한 Q&A 등이 담겼다.

특히 ‘신분과 계급을 뛰어넘은 평등승가의 원칙’ ‘나와 같이 남을 사랑하라는 동체대비의 가르침’ 등을 통해 불교의 평등사상을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소개해 접근성을 높였으며, 1940년부터 현재까지 사회적인 논란을 야기했던 종교차별 사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차별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소개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바로잡기 위한 간단한 문답을 소개, 진정한 평등과 차별금지법에 대한 바른 이해를 돕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마지막 챕터로 구성된 ‘종교차별 예방 및 대응요령’이다. 공직자의 종교편향 및 차별언행, 공공시설물의 종교편행적 표현 등 종교중립 의무를 위반한 대표적인 예를 별도로 기재했을 뿐 아니라, 신고방법과 이후 구제절차를 소개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 수 있도록 유도했다.

종평위는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를 통해 많은 불자들이 불교적 시각에서 당당하게 차별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불의에 대응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등을 실천하는 희망의 가르침, 불교〉는 2000부 제작돼 전국의 주요사찰과 불교대학, 대불청 지구, 대불련 지회, 중앙승가대, 전국비구니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송지희 기자